

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 연구

-각 이본에 표현된 얼굴·머리형태를 중심으로-

전혜숙·유혜경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I. 서론

문학은 사회의 표현¹⁾이라 하여, 문학과 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 주는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 사회상, 사상적인 특성을 문학을 통해 연구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중에서도 판소리 문학을 보자면 조선후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혁과 궤를 같이 하여 대두된 서민문학의 하나로서, 17세기 말경에 형성되어²⁾ 전승, 변모되어 오며 일반서민들의 애호를 받아 왔다. 조선후기의 대표적 문학장르인 판소리계 소설은 당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인물묘사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 규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춘향전의 문학적 표현을 단순한 묘사가 아니고 당시대 작가에 의해 투영된 작가의 가치관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선후기의 사회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보며, 특히 춘향전의 내용 중에서도 춘향의 외양묘사와 그의 가치관에 따른 행동양식은 조선후기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의 영원한 여인상, 미인상을 대표해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춘향의 외양묘사를 분석 연구해 봄으로서 당시대의 이상적 미인상, 여인상을 입증하는데 보다 풍부하고 사실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가진 춘향전을 연구분석 대상으로 하여 춘향전에 수록된 춘향의 외양묘사를 통해 조선후기 이상적인 미인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18세기 중반에 처음 저술되어 20세기 초까지 150여 년에 이르는 동안 100

1) R. Wellek & A. Warren,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p.140.

2) 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諸問題,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p.76.

여 편이 넘게 저술된 이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뽑히는 최초의 한문소설인 18세기 중엽의 晩華本(1754), 19세기 중반의 京板30張本(1847~1858), 南原古詞(1864~1869), 20세기 초의 完板84張本 烈女春香守節歌(1906~)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춘향의 외양묘사, 특히 얼굴과 머리모양의 묘사를 통해 나타난 미인상을 규명해 보면서, 각 이본들의 저술 시기가 각기 다른 점을 놓치지 않고 이들의 문학적 외양묘사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각 이본들의 저술연도에 따르는 미인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결론

춘향전의 最初本인 晩華本(18세기)에서 춘향의 신분은 기생으로 후대본에서는 볼 수 없는 목욕장면등이 나타나는데, 얼굴·머리형태 등 춘향에 대한 구체적인 외양묘사는 거의 없고, 춘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미색, 속향이, 연꽃’ 등의 표현이 주류를 이룬다.

19세기 중반경의 작품인 京板 30張本과 南原古詞은 풍부한 사설을 통해 춘향의 외모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춘향은 기생의 신분이지만 이상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반분대 화장, 秋水明眸라는 눈의 표현, 귀밑머리(京板本) 사양머리(南原古詞) 등의 묘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세기 초의 작품인 完板84張本에서는 앞 시대의 이본에서와 같은 기생이 아닌, 여염가처자의 신분으로 상승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앞선 만화본의 개략적 묘사나, 경판본·남원고사에서의 지나치게 이상적인 묘사에 비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이상적 여인상을 춘향전의 외양묘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조선조 여인의 외형적 모습은 인간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춘 외모의 소유자가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당시 조선사회가 개성존중의 사회가 아니라 공식화를 요구하는 사회임을 알 수 있고, 조선사회가 윤리면에 집착이 강한 시대였으므로 춘향전 속에서 여인상의 성격과 행동은 오로지 당대의 윤리로 반영한 성격과 행동의 인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소설속의 인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이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기 마련으로서, 특히 획일화되어 있는 사회 속의 인물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의 유형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보편적으로, 미인에 대한 선호 역시, 주체적으로 여성들만의 것이 아닌 남성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한 부분의 형상화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선조의 고전소설의 대표라 볼 수 있는 춘향전에서 현대소설에 비해 보다 더욱 등장인물의 전형화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조선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전형성과 획일성에서, 당시 그 시대와 사회의 현실성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합목적성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과거의 미인상을 정립해봄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미인상 역시 인간의 내·외면적인 모습 속에서 그 본질을 찾아보고 적합한 미의 기준을 확립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李殷昌, 한국의 미인상-조선시대의 미인도를 중심으로, 여성문제연구 13집, 1984, p.243.
- R. Wellek & A. Warren, 문학의 이론, 을유문화사, 1982, p.140.
- 김동욱, 판소리사 연구의 諸問題,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p.76. 이론, 을유문화사, 1982, p.140.
- 金英子, 文學作品에 나타난 服飾의 美意識에 관한 考察, <복식> 6호, 한국복식학회, 1982.
- 琴基淑, 服飾에 表現된 美意識에 관한 研究-春香傳을 中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金用淑, 조선조후기 지방 관아의 복식-국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淑明女大論文集 17, 1977.
- 鄭媛允, 春香傳에 나타난 人物의 服飾形態에 관한 研究, 嶺南大學敎 석사학위논문, 1993.
- 권현주, 朝鮮後期 판소리계 소설속에 나타난 妓女服飾研究, 동아대 석사논문, 1993.
- 金東旭, 春香傳比較研究, 삼영사, 1983. pp.23~27.
- 李樹鳳, 晚華本 春香歌 해제,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화사, 1991, pp.493~504.
- 최광현, 만화본 춘향가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59.
- 李文成, 京板 春香傳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4~7.
- 김진영의 4인, 춘향전 전집(4), 박이정, 1997, p.45.
- 김의정, 春香傳研究: 南原古詞本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p.6~8.
- 유희경, 조효순,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2000.
-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일지사, 1988, p.378.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8.
- 申惠媛,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인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